

## 표준어와 방언의 오늘과 내일

이기갑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표준어의 제정과 개정

표준어는 지역이나 사회적 요인에 따른 언어의 변이가 심한 경우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국민들에게 통일된 어문 교육을 시키며, 국가적 공용어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한 나라의 규범 언어이다. 표준어는 우리나라처럼 국가 기관이 명시적인 규정을 통해 제정할 수도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수도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역의 말을 묵시적인 표준어로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여왕의 영어(the Queen’s English)’라 하여 왕족의 언어를 표준어로 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표준 발음만을 떼어서 ‘용인된 발음(RP: Received Pronunciation)’이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인된 발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특권을 가진 계층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서는 표준어를 ‘공통어’라 하는데 도쿄 지역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두루 일컫는다. 중국의 경우도 수도인 북경에서 사용되는 중국어를 ‘보통화’라 하여 표준어로 삼고 있다. 중국의 보통화는 북경어 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어를 기초 어휘로 하며 전형적인 현대 구어로 쓰인 저작을 문법적인 기준으로 삼은 공통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조선어학회가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하면서 맞춤법의 표기 대상이 표준어임을 명시하고, 표준어는 ‘현재 중류사회가 쓰는 서울말’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규정된 표준어의 실제적인 내용이 드러난 것은 1936년 조선어학회가 제시한 <사정한 조선어표준말모음>을 통해서였으며, 이후 《우리말큰사전》 등 모든 국어사전에서 표준어는 올림말의 대상이 되었다. 해방 후 국어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표준어는 교육용 언어로서 규범의 구실을 하게 되었으며, 방송과 신문 등 모든 매스컴의 언어로 사용되면서 명실상부한 한국의 공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88년 표준어는 ‘중류사회가 쓰는 서울말’에서 ‘교양 있는 사람이 두루 쓰는 서울말’로 그 기준이 바뀌면서 ‘중류’와 같은 계층의 개념 대신 ‘교양 있는’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다. 그 결과 표준어는 교육 받고 교양 있는 사람의 말씨라는 인식이 더욱 굳어지게 된 것이다. 1988년 이후 표준어는 계속 새로운 낱말들을 받아들이면서 단수 표준어에서 복수 표준어의 시대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수의 낱말들을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렁챙이’ 외에 ‘명게’가 표준어로 인정되고, 팔다리를 뺀고 엎드린 사람의 허리 위에서부터 목까지를 물로 씻겨 주는 일을 가리키는 표준어는 ‘등목, 등물, 목물’의 세 가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표준어가 개방적으로 변하게 된 것은 현실 생활에서 다수의 언중들이 사용하는 것을 표준어로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표준어는 고정된 어휘 목록이 아니라 언제든지 넓혀질 수 있는 개방된 목록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던 ‘짜장면’이 마침내 ‘자장면’과 함께 표준어로 대접받기에 이르렀다.

## 2. 표준어와 서울말

1933년의 <한글마춤법통일안> 이후 한국의 표준어는 ‘중류’ 또는 ‘교양 있는’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는 했지만 서울말이었다. 그런데 ‘서울말’의 개념은 매우 모호하다. 한국의 서울은 서울 토박이들만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결과 오히려 서울 토박이보다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니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울말이란 개념도 어차피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실제 대대로 서울에서 살았던 서울 토박이들의 말을 정밀하게 살펴보면 표준어와 거리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사 ‘하다’는 충청도나 전라도의 말과 같이 서울 토박이들도 ‘허다’를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듯이’와 같은 연결어미를 ‘-데기’처럼 사용하여 서남방언의 형태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연결어미 ‘-고’는 대부분의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구’로 발음하고 있어, 서울 사람들의 고유한 말인 ‘서울 사투리’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우리가 아는 표준어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193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표준어는 국어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정되고 고쳐졌다. 처음에 제정된 표준어와 달리 현실의 서울말은 변화를 겪기 마련이다. 이 변화는 서울말 자체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변화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다. 비록 표준어의 기준이 자연과학과 같은 엄격성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아마도 다수의 서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표준어의 근간을 이루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서울 사람의 범위에 지방 출신들도 다수를 차지하면서 서울말의 외연이 자연스럽게 넓혀지게 된 결과 표준어의 대상이 되는 서울말 속에는 지방의 방언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채소의 한 가지인 ‘무’가 과거에

‘무우’였다가 오늘날 ‘무’로 바뀐 것은 서울말 자체의 변화 탓일 것이다. 그러나 ‘상추’가 과거에 ‘상치’였다가 ‘상추’로 바뀌게 된 것은 ‘상추’라고 말하는 지방 사람들이 서울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생긴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서 ‘정구지(=부추)’, ‘건덕지(=건더기)’, ‘찌짐(=부침개)’과 같은 방언 낱말들을 표준어로 삼자는 의견에 응답자의 54.5%가 찬성하였다. 이 결과는 표준어와 방언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 어쨌든 방언도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여 일반화된다면 굳이 표준어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니, 이는 표준어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 가는 열린 존재임을 말해 준다.

### 3. 표준어의 권위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우리말 교육이 시행되면서 표준어는 교육의 규범 언어로서 압도적인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교육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문서나 언론 매체 등에서 표준어만을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표준어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배워서 익히고 써야 할 언어가 된 것이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언론 매체에 종사하는 아나운서, 기자들은 반드시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표준어 대신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려면 따로 표준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결과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골 사람 또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 교양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기에 이르렀다.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도 1960년대 초등학교 시절에는 교장 선생님이 사투리를 쓰지 말자는 현수막을 교문에 달고 전체 조회 시간에도 이를 강력히 권고하였던 기억이 있다. 그만큼 표준어는 절대선의 위치를 차지하였고, 상대적으

로 방언은 없어져야 할 우리말의 잡초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표준어가 누리는 언어적 권위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중국의 경우 북경어인 보통화가 표준어이지만, 북경과 정치적, 경제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해에서는 자신들의 방언을 고집하여 보통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정서가 있기도 하다. 수년 전 글쓴이가 상해를 방문했을 때 길거리에서 ‘보통화를 씹시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그만큼 상해는 자신의 방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해 방언과 북경어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표준어인 보통화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공용어, 교육어로서는 보통화가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각 지역 방언은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용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은 표준어의 권위가 가장 강한 나라이다. 영국에서 ‘용인된 발음(RP)’을 구사하는 것은 교육받은 상류층임을 말해 주는 징표이니, 상류 계층으로 신분 상승을 할 경우 표준 영어를 반드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나 공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표준 영어, 그리고 용인된 발음을 구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1964)는 런던의 하류 계층에 속하던 여인이 상류층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때 원래 사용하던 런던 사투리인 ‘코크니(Cockney)’ 대신 용인된 발음인 ‘RP’를 배우기 위해 개인 교습까지 받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처럼 나라에 따라 표준어가 갖는 권위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영국처럼 강력한 권위를 자랑하던 나라에서도 조금씩 그 권위가 약화되는 변화를 겪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지역 방언의 부상으로 인해 표준어의 권위도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변화도 결국은 언어 현실을 인정하면서 표준어의 권위가 그만큼 약해졌음을 말해 주는 증거라 하겠다.

#### 4. 방언에서 표준어로의 전환

표준어 교육이 일반화되고 매스컴 특히 텔레비전의 영향 때문에 방언은 점차 표준어로 바뀌게 된다. 특히 표준어로의 대체는 낱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 때문에 세대에 따른 언어 차이도 뚜렷하게 발생한다. 현대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의 차이는 표준어 사용 능력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나는데, 아마도 50~60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언어 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가해지는데, 텔레비전은 세대를 불문하고 영향을 미치므로 이미 표준어 교육을 받은 세대의 경우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 할 수 있지만, 교육받지 못한 세대나 나이 든 세대의 경우에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결과로 실제 방언 조사를 가 보면 70대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표준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 과거처럼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찾아 방언조사를 하던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이처럼 표준어 교육과 매스컴의 영향으로 방언의 자리를 표준어가 차지하게 되지만, 어휘 차원에서의 '방언 > 표준어'의 변화는 다양하게 일어난다. 이때 가장 급속한 변화를 겪는 부분은 아마도 '명사'가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 표준어 '부추'는 전라도에서 '솔'이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날 50대의 전라도 출신 여성들은 '솔'의 의미를 알면서도 실제로는 '솔' 대신 '부추'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더 즐겨 한다. 그러나 20~30대의 전라도 출신 젊은이라면 아마도 '솔'이 가리키는 식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60대 이상의 세대가 '솔'만을 사용하고, 50대의 여성들이 '솔'의 뜻을 알면서도 '부추'를 사용한다면, 20대나 30대의 사람들은 '솔'의 의미를 아예 모르는 형편이니, 이것은 곧 '솔 > 부추'의 변화 과정을 보여 주는 실증적인 예라 할 것이다.

나이 든 전라도 사람들은 떡국을 '끓인다'고 하지 않고 'ս다'고 한다.

동사 ‘쑤다’는 곡식의 알이나 가루를 물에 끓여 익힌다는 뜻인데, 떡국은 곡식의 알이나 가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쑤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것은 ‘떡국’을 전라도 지방에서는 과거에 ‘떡죽’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떡국을 국이 아니라 죽으로 인식한 탓에 동사도 ‘끓이다’ 대신 ‘쑤다’를 쓴 것이다. ‘국’은 고기, 생선, 채소 따위에 물을 많이 붓고 간을 맞추어 끓인 음식이나 일반적으로 밥을 먹기 위해 준비한 음식이다. 따라서 끼니에 밥이 없이 국만 먹는 경우는 없으니 ‘국’은 ‘밥’을 전제로 하는 음식인 셈이다. 그런데 ‘떡국’은 결코 밥을 전제로 하는 음식이 아니며 밥 없이 독자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 국이라 하기에는 무리함이 있다. 한편 ‘죽’은 ‘국’과 달리 밥 대신 먹는 음식이므로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떡국은 ‘국’보다는 ‘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곡식의 가루나 알갱이가 아니고 가래떡이란 점에서는 ‘국’에 가까운 면이 있다. 이처럼 떡국은 국과 죽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이를 ‘국’이나 ‘죽’의 어느 한쪽으로 분류했던 것이다. 그래서 중부지방에서는 ‘떡국’, 전라도 지방에서는 ‘떡죽’이라 했으니 이에 따라 자연히 ‘떡국’은 ‘끓이다’, ‘떡죽’은 ‘쑤다’의 동사와 호응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나이 든 전라도 사람들이 ‘떡죽’ 대신 표준어 ‘떡국’을 사용하게 되면서 동사와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떡죽 쑤다 > 떡국 쑤다 > 떡국 끓이다’와 같은 세 단계의 변화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에 와 있는 셈이다. 이것은 동사보다 명사가 더 표준화되기 쉽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다. 오늘날 전라도의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 번째 단계인 ‘떡국 끓이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미 전라도의 토착적인 표현 대신 표준어로의 전환이 완결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휘 차원에서는 명사가 동사나 형용사보다 표준화가 더 쉽게 일어난다. 반면 운율적 요소는 어떠한가? 우리말에서 변별적으로 기능하는 운율적 요소는 방언에 따라 길이와 높이가 있다. 동북방언, 강원도 영동 지역어, 동남방언은 중세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성조가 변별적으로 기능하는

반면 서부방언 지대에 속하는 서북방언, 중부방언의 대부분 그리고 서남방언에서는 높이가 길이가 변별적으로 기능한다. 그런데 표준어는 서울말을 기반으로 하므로 길이언어인 셈이다. 따라서 같은 길이언어에 속하는 방언의 경우 표준어로의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 이 때문에 적어도 운율적 차원에서는 중부방언권이나 서남방언권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표준어와 가까운 운율을 구사할 수 있다. 반면 성조언어를 지닌 동남방언권 화자들은 높이에서 길이의 전환이 어려운 탓에 표준어의 운율을 따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동남방언권 화자들은 꽤 긴 시간을 서울에서 살더라도 자신의 어릴 적 운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율은 낱말이나 문법적 요소에 비해서는 훨씬 방언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요소이다. 그래서 동남방언의 화자들은 자신의 의지에 상관 없이 언어의 표준화에 저항하는 것으로 비춰지곤 한다.

## 5. 방언

### 5.1. 방언의 가치

방언은 한 언어 내부에서 지역과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변이체를 말한다. 과거의 신분제가 없어지고 사회가 평등화하면서 계층에 따른 언어 변이는 많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남성과 여성에 따른 언어 차이, 직업이나 세대에 따른 언어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좁은 땅이지만 산이 많은 탓에 나라의 크기에 비해서는 지역 방언의 차가 큰 편이다. 그래서 서울이 포함된 중부방언 외에 서북방언, 동북방언, 서남방언, 동남방언, 제주방언 등이 따로 존재하고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육진방언을 별도로 설정하기도 한다.

방언은 독자적인 체계와 역사를 지니고 있어 우리말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귀중한 언어재이다. 언어학적으로는 우리말의 변이와 역사를 보여 주는 자료일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는 방언이 사용되는 지역의 언어문화 그리고 언어에 투영된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의 귀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학문적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표준어가 제정된 후로 방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준어가 말 그대로 우리 언어생활의 규범으로 작용하면서 방언은 표준어 사용을 방해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학교에서 표준어 교육이 시행되자 방언 사용자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도 생겨나게 되었다. 더구나 방언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말로 이해되면서 방언은 시골말, 방언 사용자는 시골 사람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었다. 방언은 우리말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사람들은 다양성보다는 표준화와 획일성을 더 귀한 가치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지역에서 방언은 그 지역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로 사용되어 왔다. 비록 표준어의 영향으로 방언 어휘가 많이 사라지기는 하였지만 지금까지도 방언은 우리의 일상 언어인 셈이다.

방언은 표준어와 더불어 사용된다. 특히 문학 작품에서 방언은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사용되어 왔다. 잘 알려진 대로 평북방언으로 쓰인 백석의 시, 충청도 방언이 투영된 이문구의 소설 등은 방언을 활용한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조정래의 《태백산맥》, 최명희의 《혼불》 등에서도 생생한 방언이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경우이다. 작가들은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지역을 드러내기 위해 방언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등장인물의 계층성을 드러내기 위해 방언을 사용하기도 한다. 문학 작품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인물은 주로 교육받지 못한 하류 계층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데,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김범우 등 인텔리 계층은 표준어를 사용하고, 하대치, 염상구 등의 비인텔

리 계층은 별교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방언은 방송의 소재로 쓰인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드라마에서 방언 사용자는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지역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역시 하류 계층이나 특정 직업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 밖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를 웃기는 웃음의 소재로 사용된다. 우리 희극의 역사에서 사투리가 웃음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인 것은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코미디언 백남봉, 남보원이 팔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웃긴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황산벌>(2003)과 같은 영화에서는 고대 삼국시대가 그들이 사용하는 방언의 차이로 구분된 것도 영화 속에서 방언이 지니는 가치를 명시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다.

최근 방언은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 그리고 상업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상호나 상품의 이름에 사투리가 쓰여 색다름을 주고,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나 가게의 간판에서도 심심찮게 사투리가 쓰여 고객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이처럼 방언 또는 사투리는 지역의 일상어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문학, 문화, 상업 등의 여러 영역에서 새로운 쓰임새를 찾고 있으니, 이러한 언어적 다양성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며 유산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표준어의 가치와 상관없이, 방언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 역시 이해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5.2. 방언에 대한 의식의 변화

표준어의 위세가 대단했던 시절, 상대적으로 방언은 시골말, 세련되지 못한 거친 말, 상스러운 말 등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려면 말하는 데 눈치를 보아야 했다. 그 결과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1학년 여름방학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어느새 말이 서울말 비슷하게 변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여학생들에게서 심하게 나타나는데, 표준어에 대한 지향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증거라 하겠다. 이러한 서울말 또는 표준어 지향의 변화는 그러나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기도 한다. 마치 고향을 배반하였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서울말 사용을 흔히 ‘경사(京辭) 쓴다’라고 하여 부끄러운 일로 비난하였다고도 한다.

이처럼 표준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방언들이 근자에 들어 조금씩 제 가치를 인정받아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방언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쉽게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방언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그만큼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사투리를 사용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자신이 방언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이를 굳이 배척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것이다. 더불어 매스컴에서 방언 사용자들이 늘어난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옛날에는 엄격한 표준어 사용 심사를 거친 아나운서들만이 뉴스를 진행했었지만 근년에는 이른바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고 지방 출신 사회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의 말에서도 방언을 손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방언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지방자치체의 확립 때문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정치되었던 지방자치법이 1988년에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독립성이 확보되면서 자치단체의 위상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적 변화로 인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자긍심도 함께 커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자신들이 사용하는 말도 새롭게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방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이러한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방언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조금씩 약화되는 변화는 실제 국립국어원이 수행한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국립국어원은 5년마다 언어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0년에 이어 2015년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5년 동안에 일어난 의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평소에 사용하는 말로서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사용 실태를 묻은 결과, 표준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5%를 차지하였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표준어를 사용하는 셈이니 그만큼 표준어 교육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언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경상방언 26.4%, 전라방언 9.7%, 충청방언 5.8%, 강원방언 2.2%, 제주방언 1.3%, 북한방언 0.1%의 순서를 보였다. 영남 지역의 인구가 많은 데다가 표준어로 바뀌기 어려운 언어적 특징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 비율을 5년 전인 201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표준어 사용 비율이 7% 상승한 반면 방언 사용률은 특정 방언에 관계없이 모두 조금씩 낮아진 결과를 보인다. 이것은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지역 방언에서 표준어로 전환되어 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준어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학력이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그 사용 비율이 높는데 이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지역에 따라서도 표준어의 사용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데, 특히 영남 지역은 6.1%의 사용 비율을 보여 다른 지역(호남 28.8%, 제주 32.2% 등)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경상도 방언의 언어적 특징이나 언어적 보수성 그리고 자신의 방언에 대한 고집 등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역 방언의 사용에 대해 묻은 결과,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모든 지역에서 10% 이내로서 자신의 말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방언과 다른 방언 사용자와의 대화에 대한 의식을 묻은 결과 제주 32.3%, 강원 23.6%, 경상권 16.8%, 수도권 9.3%, 전라권 8.3%,

충청권 7.4%가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타 지역 방언에 대한 배타적 의식을 반영하는 순서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제주도와 강원도 및 영남 지역 사람들이 비교적 다른 방언에 대해 배타성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적으로 섬이거나 산악 지대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고립되고 폐쇄적인 지역일수록 타 방언에 대한 배타성이 강함을 짐작할 수 있다.

지역 방언의 사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지역 방언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19%를 차지하였다. 이는 2010년의 28.6%에 비해 9.6%가 낮아진 수치로서 지역 방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표준어와 지역 방언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2010년 28.4%에서 2015년 31.4%로 약간 상승하였으며, 때와 장소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비율은 28.2%에서 39%로 10% 이상 상승하였다. 이 역시 지역 방언에 대한 거부감이 5년 전에 비해 줄었음을 의미한다.

지역 방언이 언어 통일에 방해가 되고 지역감정을 유발하므로 없어야 한다는 비율은 11.5%로서 2010년의 19.1%에 비해 줄어들었다. 반면 표준어와 기능이 다르다거나 국어의 역사를 밝히는 귀중한 자원이라거나 지역 고유의 말이라는 이유 등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비율은 88.6%로서 5년 전의 80.7%에 비해 8%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 이러한 비율 역시 방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졌음을 말해 준다.

반면 자신의 자녀가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표준어만 사용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30.3%에서 36.1%로 증가한 반면 지역 방언만 사용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3.1%에서 1.2%로 줄었다. 또한 표준어와 지역 방언 모두를 사용하기를 바라는 비율은 44.2%에서 39.3%로 줄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응답자 자신의 세대에서는 방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미래의 세대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텔레비전의 대담이나 토론 프로그램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부정적인 반응이 47.4%로서 2010년의 44.3%에 대해서는 약간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부정적 반응 가운데서도 특히 자신의 지역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기가 좋지 않다는 반응이 13.8%에서 20.1%로 높아졌다. 이것은 5년 사이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언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따라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서 5년 동안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은 5년 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방언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미래의 세대에 대해서는 표준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인다고 해석된다. 또한 방송 등 매스컴에서 방언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커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세대에서는 방언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공적 언어로서의 표준어의 위상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는 표준어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점차 커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 6. 미래의 표준어

언어 의식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들은 미래 세대에 표준어가 더 널리 사용될 것을 바라고 있다. 실제로 표준어 교육과 매스컴의 영향력이 지금과 같이 지속된다면 방언은 점차 표준어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지역 방언의 상당 부분은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제주 방언처럼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방언은 표준어로의 전환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며, 중부방언이나 서남방언처럼 표준어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방언

역시 표준어에 쉽게 동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동남방언이 표준어로의 전환에 가장 저항을 할 만한 방언으로 생각되지만 이 방언 역시 어휘 차원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다만 성조가 포함된 억양의 경우는 표준화하는 데 상당한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남쪽뿐만 아니라 북한 방언의 미래는 어떠한가? 이미 북한 지역은 남쪽의 표준어에 대응하는 문화어를 표준 삼아 언어의 통일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물론 평양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 그리고 산악 지대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 방언이 아직도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어 중심의 언어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미래에 통일이 되었을 경우의 표준어 상황은 어떠한가? 북한의 문화어는 일정 부분 남한의 표준어와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일치를 보이는 부분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표준어와 문화어는 큰 어려움 없이 언어적 통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에도 남한의 텔레비전 드라마 등이 유입되어 남한의 표준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기에 통일 이후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 등을 통해 통일된 언어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표준어 차원에서는 큰 무리 없이 언어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탈북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표준어와는 별개의 문제라 하겠다.

표준어의 세력이 점차 커질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방언의 위치는 어떠한 야 하는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언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우리 언어문화의 한 유산이다. 따라서 이를 애써서 없애려는 노력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방언 사용을 권장하거나 강요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엄연히 국가에서 정한 표준어가 존재하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이나 언어적 통일성을 위해서도 표준어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므로 표준어 사용은 권장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적인 차원에서

는 표준어 사용을 권장하고, 비공식적 또는 사적인 차원에서는 방언을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태도라 하겠다. 이 밖에 문학, 문화, 상업의 측면에서 방언이 활용되는 것은 우리말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극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낯설고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 외국어 대신 방언을 이용한다면, 우리말의 활용력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